

20년 장기 표류 광주문화관 건립 물꼬 트이나

2009년 120억 예산 불용·2013년 입지 갈등…번번이 무산
문인협회 등 36명 추진협 구성 건립 촉구 결의문 市에 전달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광주문화관(문학관) 건립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이 문제를 문학인들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과거 잡음을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인사는 추진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문단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학관 건립 사업은 지역 문화계의 숙원이자 오랜 이슈로 지난 1996년부터 문학관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의견 불일치와 잡음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09년에는 광주시로부터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끝내 불용 처리됐고, 2013년에는 ‘명성예식장’ 부지 선정에서 발생한 잡음으로 백지화됐다.

2013년 당시 부지 선정을 놓고 문학단체 간 갈등이 빚어져 결국 건립 문제는 수포로 돌아갔다. 후보지로 선정된 명성예식장은 문화과 아무런 연관이나 상징성이 없는 예식장 건물인데다 소유주가 제시한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건립 후보지까지 선정하고 문학관 후보지를 동구에만 한정해 공모한 것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주의 문학단체를 비롯한 문화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문학관 건립 추진을 위

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문학관 건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작지 않다는 게 문단 안팎의 여론이다. 작가회의 측 관계자는 “원로나 문단 어른들은 과거 잡음이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추진위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집행부가 출범한 문협은 다른 사업 추진에 앞서 윤장현 시장을 면담하고 문학관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추진위원회는 광주문인협회(문협) 임원시 회장,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의 박관서 회장, 역대 문협 회장단, 작가회의 조진태 전 회장, 최규철 광주예총회장, 최상준 (사)용아박용철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최근 광주예총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광주문학관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역사성, 효율성, 접근성을 고려해 공유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문학단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문학관 건립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2년뒤 광주에서 만남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에 참석, FINA대회를 인수받아 흔들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제부터 광주의 시간”

세계수영대회 폐막식

윤장현시장 대회기 인수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수 놓았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시에 전달됐다.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폐막에 따라 광주시는 2년 후 열리는 광주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에 참석해 차기 대회 개최도시 대표로서 대회기를 인수했다.

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부터 ‘광주의 시간’이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특별한 가치가 담긴 광주정신이 2019광주대회를 통해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슬로건이 ‘Dive into Peace’인 것처럼 윤 시장의 메시지에서 평화가 강조됐다.

윤 시장은 또 “광주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이자 친환경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첨단산업도시”라면서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이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국제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시장은 폐막식 직후 시청 직원들에게 보내는 ‘헝가리 메시지’를 통해 “2년 전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U대회를 성공시켰고 그 힘이 ‘광주의 시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19년 대회를 성공시키자”고 또 한 번의 헌신과 열정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윗선 개입 없었다”…제보조작 수사 마무리 “머리숙여 사죄”…국민의당은 대국민 사과

국민의당이 31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대통령선거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일동의 사과문을 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당이 진상조사로서 밝혔던 사실관계와 오늘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는 한 치도 차이가 없다. 이 범죄만큼은 저희 당도 속았고, 국민

도 속았지만, 다시 한 번 저희 당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나누어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국민의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제보조작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송영무 국방 “8월 위기설 위협 느끼지 않아”

“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등 北 추가 도발 가능성”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또, 한미 미사일지침 협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등 국방협의체를 활용하되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핵 잠수함 도입 방안과 관련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방개혁을 통한 북한에 대한 독자 타격 가능 여부에 대해 “작전개념을 바꾸는 것이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국방개혁에 킬 체인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킬 체인(Kill Chain)이

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이다.

송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다’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국방개혁에서 해야 할 분야는 킬 체인”이라고 설명했다.

‘8월 위기설’에 대해 송 장관은 “크게 집착하고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알았으며 이동식 발사대도 사전에 포착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사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신동엽,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도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